

‘마이산 케이블카 설치 촉진’ 범 진안군민 쫓기대회 개최

인구도 관광객도 반토막

용담댐 건설 피해 커... 지역경제 활력·노약자 운송수단으로 필요

마이산 케이블카 설치 촉진 범군민 대회가 지난 4일 오후 2시 진안군 애향본부와 대한노인회 진안군지회 등 50여 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진안읍 만남의 광장과 군청 광장에서 열렸다.

이날 영하의 날씨에도 사회단체 회원과 11개 읍면 주민들 1,000여명(주최측 추산)이 참여해 마이산케이블카에 설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사회단체는 결의문에서 진안군은

1970년대만 해도 10만명의 군민과 더불어 연간 200만명 넘는 관광객이 마이산을 찾아 왔으나 용담댐 건설로 인구는 반토막이 났고 마이산 관광객마저 반 토막이 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안군 사회단체를 비롯해 군민들은 한뜻이 되어 범 군민 쫓기대회를 열고 나후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열악한 관광자원을 확충하기 위한 마이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하루빨리 추진되기를 바란다 밝혔다.

또한 마이산 케이블카 설치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북부에서 남부로 가는 길은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 전문 산악인 아니면 가족 동반과 노약자들의 보행이 어려워 케이블카는 관광 위락시설이 아닌 노약자, 어린이, 가족의 운송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마이산 케이블카 설치로 불행한 과거사를 거울삼아 3만 군민이 일치단결하여 희망찬 웅비의 원년이 되자고 합창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반딧불농업대학 졸업생 108명 배출

제9기 무주군 반딧불농업대학 졸업식이 5일 무주읍 농민의 집 농민마당에서 개최됐다.

황정수 무주군수와 유송열 의장을 비롯한 무주군 4·H본부 최왕진 회장과 생활개선무주군연합회 최선자 회장, 농촌지도자무주군연합회 임영식 회장 등 내빈과 졸업생 등 12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시상 및 졸업증서 수여, 학과별 기념촬영 등에 함께 했다.

황정수 군수(반딧불농업대학장)는 “실력이 곧 경쟁력이라는 마음으로 학업에 매진해주신 여러분께 존경의 박수를 보내 드린다”라며 “농업대학 과정을 통해 보고, 듣고, 직접 해보며 얻은 지식과 경험이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실현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6차 산업학과 김영제 씨가 농촌진흥청장상을 수상했으며,

사과학과 나호은씨, 모바일마케팅학과 전민규씨, 6차 산업과 한은성씨가 반딧불농업대학장이 주는 공로상을 받았다.

또 사과학과 백점욱씨를 비롯한 14명이 반딧불농업대학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성실히 마쳐 우수상을 수상했다.

졸업생들은 “생업과 공부를 병행하는 게 쉽지않은 않았다”며 “그래도 필요한 공부라는 절실함과 해야겠다는 의지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 낼 수 있었던 것 같다”라고 전했다.

지역농업발전과 농업인들의 전문 경영능력과 기술력 향상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무주반딧불농업대학에서는 올해 총 108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처음 개교한 2009년 이래 총 1,127명의 졸업생이 배출돼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 실현의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매아리

장수군,도 도로정비 평가 '최우수'

장수군이 전북도가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2017년 전북 도로정비 평가'에서 최우수 군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장수군은 위임국도 및 지방도 등 166개 노선 622km 구간에 대해 시설물 정비, 차선도색, 포트홀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로 훼손된 도로 시설물, 배수로, 낙석, 토사 유출물 등을 인력과 장비를 긴급 투입해 도로이용자의 불편 사항을 조속히 해결했다는 평가다.

또 과소된 포장도로의 신속한 복구 시행과 상시 현장 출동 체계를 구축해 도로 이용자의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도 정보보안 관리 '우수'

장수군은 전북도가 실시한 2017년도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군은 그동안 정보통신 분야 평가지표성과 달성률 향상을 위해 매달 실적점검 및 부진지표 문제점을 분석,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적향상을 위해 철저히 대비하고 관리해 왔다.

또 올 상반기에 전 직원 정보통신보안 교육을 했으며,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는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반딧불축제, 내년 9월 1일~9일 확정

늦반딧불이 출연시기 고려... 반딧불사와 출하시기와도 맞물려

무주군은 제22회 무주반딧불축제를 여는 시기를 2018년 9월 1일부터 9일까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주군청 관광육성 김영광 담당은 “반딧불이가 출연하는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늦 반딧불이의 출현상황과 날씨, 지역의 상황, 여건 등 다방면에 걸친 조사와 분석, 비교를 통해 결정을 한 것”이라며 “이 때가 늦 반딧불이 출연이 가장 많고 달빛의 영향도 없어 반딧불이 탐사에 가장 최적기일 뿐만 아니라 탐사할 수 있는 지역도 무주읍과 부남면 등지에 고루 분포돼 있어 최적기”라고 전했다.

이로써 무주군은 반딧불축제와 최고 하이라이프이자 해마다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꼽히는 반딧불이 신비탐사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반딧불사과(홍로 품종) 출하시기와도 맞물려 반딧불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무주가 자랑하는 제철 과일을 현지에서 맛보는 기회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축제 개최시기 확정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올해는 날씨 때문에 늦반딧불이 출연이 늦어져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그런 점까지 고려해 내년 축제 날짜를 정했다고 하니 기대가 된다”라고 전했다.

“자연의 빛 생명의 빛 미래의 빛”을 주제로 한 무주반딧불축제(5년 연속 정부지정 최우수축제)는 올해 21회를 맞아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무주읍 예천문화관 일원에서 개최됐으며 25만여 명이 반딧불이 신비탐사와 주제관 관람, 반디별 찾기 등 환경축제에 걸맞는 주제 프로그램을 비롯한 낚시, 낚시, 낚시 등 전통놀이 시연 등에 동참하는 성과를 올렸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은 제22회 무주반딧불축제를 여는 시기를 2018년 9월 1일부터 9일까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안군, 자원봉사대상 대통령 표창

진안군은 5일 강원 용평리조트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17 자원봉사대회에서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은 자원봉사 활성화에 헌신해온 개인이나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포상으로 진안군은 자치단체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

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진안군은 인구가 2만6,000여 명에 불과함에도 연간 자원봉사 참여인원이 2만7,000여 명에 달해 군 인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진안군은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에 대한 처우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원하는 등 민·관이 하나 되어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높게 평가받았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이항로 군수는 “군민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군은 주민 맞춤형 자원봉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진안군의 자원봉사 활동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뜻깊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전북도 최우수축제 선정

인센티브 7000만원 확보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2018년 전북도 최우수축제로 선정돼 인센티브로 7,0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5일 밝혔다.

전북도에서는 지역축제 중 관광 상품성이 우수한 시, 군 대표축제를 전라북도 지정 축제로 선정, 지원해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축제를 지원하고 있다.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는 지역 어메니티 자원인 Red Color 농특산물(한우·사과·오미자·토마토 등)을 테마로 활용한 체험형 축제로, 관광객들에게 많은 즐거

움과 추억을 줘 지난 9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 3일간 축제를 개최한 결과 방문객 30만명, 현장매출액 31억원의 성과를 올려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는 등 전국 우수축제로 우뚝 서고 있는 점을 인정받아 최우수축제로 선정됐다.

홍봉길 축제추진위원장은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최고의 명품 농·특산물과 한국적인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세계 속의 문화관광축제가 될 수 있도록 알차게 꾸려나가고 축제를 통해 장수군의 농특산물과 장수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이웃돕기 손길들 줄이어

연말이 되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려는 무주군민들의 따뜻한 손길들이 줄을 잇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적성면에 소재해 있는 협동조합 ‘공간(대표 이정숙)과 표돌이 농장(대표 신동표), 반햇소(대표 전병술)에서 지난 4일 성금 50만 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지난 10월 31일에 개최된 ‘서창 붉은빛 축제’에서의 먹거리 판매 수익금 전액으로 알려져 훈훈함을 주고 있다.

5일에는 안성면 한소리회(대표 이배현)와 한울타리회(대표 김천수)에서도 200만 원을 기탁했다.

군에 접수되는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 테 홍

서바이벌

레프팅 / 카약 ATV / 버기카

스키 / 보드 펜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 485-2)

대표 약력

일본인 스키 및 점프 선수 활동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
 국제대회 디스 잡기 및 우승
 동계U대회 국가대표 출전
 국가대표 코치 역임
 일본 스포츠 국제대회 참가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NSL/NSL2)취득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베르티 지역 취득
 응급처치 요원 자격증 취득
 레프팅 가이드 자격 취득
 수상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
 연)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대표